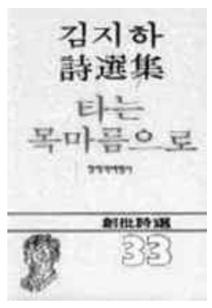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시인 별세

'오적'으로 유신과 맞선 저항시인

김지하 작가가 지난 2014년 서울 종로구 견운동 옥션단에서 열린 수묵산수전 '빈 산'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출신으로 향년 81세
반독재 투쟁 옥고 치러
박근혜 지지 '변절' 휩싸이기도



시 '오적'(五賊), '타는 목마름으로'의 김지하 시인이 8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토지문화재단 관계자는 시인이 최근 1년여 동안 투병생활을 했으며 이날 오후 강원도 원주 자택에서 타계했다고 전했다.

본명이 김영일인 고인은 민중문학을 새롭게 재해석한 시를 쓰는 한편 현대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맞섰던 투사였다. 아울러 전통 사상에 기초한 생명 사상을 추구했던 사상가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지난 1941년 목포에서 출생한 시인은 1954년 원주로 이사하면서 그곳에서 소년기를 보냈다. 이후 서울 중동고를 거쳐 서울대 미학과에서 수학했다.1993년 서강대학교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2006년 제주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명지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동국대학교, 원광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강의했고, 2013년부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했다.

고인은 4·19혁명, 6·3사태 등을 겪었으며 이를 계기로 학생운동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가 1970년대를 대표하는 반체제 문인으로 알려진 것은 그러한 활동에서 비롯됐다.

특히 당대 사회 현실을 예리하게 풍자했던 작품 '오적'(五賊)을 발표하고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타령, 판소리 사설 등을 변용해 쓴 시를 일컫는 담시는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 형태의 시로 전달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고인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70년대는 시련의 시기였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년) 사건으로 체포돼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가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김지하의 문학적 출발은 1963년 '목포문학'에 '저녁 이야기'라는 시를 발표하면서였다. 이후 1969년 '시인'지에 '황톳길'을 비롯해 '녹두꽃' 등의 작품을 김지하라는 필명으로 발표하며 문단에 '김지하'라는 이름을 각인시켰다.

그리고 1970년 '사상계' 5월호에 '오적'을 게재하며 특권층의 부패를 질타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오적은 부정부패를 일삼던 재벌과 국회의원 외에도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일컬었다. 고인은 일제 치하의 을사오적처럼 오적으로 부르며 통렬하게 비판했다.

또한 1972년에 발표된 '비어'에서는 권력의 횡포와 민심을 풍자의 형식으로 풀어냈으며 1974년에는 '똥바다'를 통해 당대 불의와 부조리를 그만의 목소리로 날카롭게 지적했다.

90년대 이후로 고인은 전통사상 등 여러 사상을 재해석해 생명사상에 심취했고 이를 설파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잇따른 분신자살을 질타하는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칼럼으로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진영과 멀어지게 됐다. 또한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선언해 '변절' 논란에 휩싸였다.

김지하는 고 박경리 소설가의 사위로도 알려져 있다. 1973년 소설가 박경리의 딸 김영주와 결혼해 주목을 받았다.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 로터스상과 국제시인회 위대한 시인상을 비롯해 정지용 문학상,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는 '오적', '타는 목마름으로' 등의 시와 산문집 '생명', '율려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유족으로 장남 김원보(작가)씨와 차남 세희(토지문화재단 이사장 겸 토지문화관 관장)씨가 있다. 빈소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원조 월드스타' 배우 강수연 별세

한국 영화 큰 별 하늘로 떠나다

지난해 10월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강수연. /연합뉴스

뇌출혈로 쓰러져…향년 55세
'씨받이'로 베니스 여우주연상
11일 영화인장 영결식 생중계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 촬영을 앞두고 삭발하는 장면

'원조 월드스타' 영화배우 강수연이 지난 7일 별세했다. 향년 55세.

고인은 지난 5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뒤 사흘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지난 7일 별세한 '원조 월드스타' 영화배우 강수연은 한국 영화계 다방면에서 큰 족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받는 배우였다.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4세때 아역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뒤 배우이자 문화행정가로 활동하며 반세기 넘게 한국영화와 함께 했다.

고인은 '똘똘이의 모험'(1971) 등에 출연하며 동양방송(TBC) 전속 배우로 연기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KBS 청소년 드라마 '고교생 일기'(1983) 등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다.

고교생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화에 출연하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고래 사냥 2'(1985),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1987) 등을 통해 청춘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성인이 된 고인은 다양한 작품활동을 통해 국민배우로 거듭났다. 특히 스물한 살 때인 1987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씨받이'로 베니스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월드스타'라는 칭호를 얻었다.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 배우는 고인이 최초였다. 이후 1989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당시 공산권 최고 권위였던 모스크바영화제에서 최우수여자배우상을 수상했다.

고인은 1990년대에도 활발한 작품활동으로 한국영화 중흥기를 이끌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1990), '경마장 가는길'(1992), '그대 안의 블루'(1993) 등 수많은 흥행작을 냈다. 이들 작품으로 대종상영화제·백상예술대상·청룡영화상 등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쓰는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여우주연상만 10차례에 달한다.

고인은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5), '처녀들의 저녁식사'(1998) 등 페미니즘 계열로 분류되는 영화에도 다수 출연했다. 아울러 '스크린쿼터 수호천사단' 부단장을 맡으면서 미국의 통상압력에 맞서 한국영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기도 했다.

2001년에는 SBS TV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정난정 역을 맡으며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갔다. 그녀의 드라마 출연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고인은 그해 SBS 연기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인은 이후 연기 활동을 줄이는 대신 문화행정가로 변신했다.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 출범 초기부터 심사위원·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2015년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2014년 이른바 '다이빙벨 사태' 이후 수년 동안 계속된 갈등과 파행의 책임을 지고 2017년 사퇴했다.

고인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물러난 이후 공식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4년 만에 공식 활동을 펼쳤다.

고인은 연상호 감독의 신작 '정이'(가제)에 주연으로 캐스팅되며 단편 '주리'(2013) 이후 9년 만에 스크린 복귀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대중들의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정이'는 촬영을 끝내고 후반작업을 진행 중이다.

장례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 영결식은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다만 조문을 비롯한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